



1,477개 약값, 평균 10.8% 내린다



다음 달부터 1,477개의 약값이 평균 10.8% 인하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213개 제약사의 5,320개 약품에 대해 약가 재평가를 한 결과 모두 187개사 1,477개 품목의 약값을 내려 3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약가 재평가란 정부가 정기적으로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약값을 조사해 국내 약값을 조정하는 것으로 2002년부터 시행됐다.

이번 인하 품목 중에 여러 가지 질환에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하는 해열진통 소염제와 만성질환인 고혈압에 장기적으로 사용되는 혈압강화제와 혈관확장제 등이 포함돼 국민의 약값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춰 줄 전망이다. 가령 고혈압 환자가 고혈압 약인 타나트릴정(29% 인하)을 한 달치 처방 받았을 경우 현재는 5,823원을 내지만 이번에 조정되면서 4,113원을 내게 돼 1,710원이 절감된다.

약값 인하율이 가장 높은 품목은 안과용제로 평균 22.4%나 됐고, 다음이 혈관확장제(14.4%), 혈압강화제(10.9%), 해열진통 소염제(10.1%) 순이다.

〈동아일보 2006. 2. 20〉

대사증후군 급증



대사증후군 환자가 지난 5년 동안 6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북삼성병원 내분비내과 이은정 교수는 2000년과 2005년 종합검진자를 조사했더니 대사증후군이 9.9%에서 16.3%로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총 10만 9,606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에서 여성은 6.8%에서 8.3%로 늘어난 데 비해 남성은 11%에서 21.5%로 83.8%가 늘어나 여성보다 남성이 더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연령대별로는 50대 이후보다 20~40대의 증가율이 높았다. 남자의 경우 50대가 43%, 60대가 6.3% 늘어난 데 비해 40대는 90%, 30대와 20대는 95%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대사증후군이란 복부비만으로 인슐린 저항성이 나타나는 복합적인 병증으로, 인슐린 저항 증후군이라고도 불린다. 대사증후군 상태가 지속되면 고혈압, 당뇨, 요산 증가, 지방간, 동맥경화 등 여러 성인병이 발생할 수 있다. 대사증후군을 예방하려면 무엇보다 생활 습관 개선이 필요하다. 기름지고 칼로리가 높은 음식을 피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정기적인 운동으로 비만을 막아야 한다.

이 교수는 “대사증후군은 쉽게 피부로 느낄 수 없는 질환이라 가볍게 볼 수 있지만, 방치하면 각종 합병증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생활 습관 교정과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말했다.

〈세계일보 2006. 2. 2〉

껌 씹으면 위장 수술 회복 빨라

위장 수술 후 껌을 씹으면 위장 기능이 빨리 회복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마운트 시나이 의과대학 외과 전문의 마이클 해리스 박사는 '외과학 기록' 2월호에 발표한 연구보고서에서 대장절제수술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수술 후 껌을 씹으면 가스 배출과 첫 장운동이 빨라지고 따라서 입원 기간도 단축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힌 것으로 헬스데이 뉴스가 20일 보도했다.

해리스 박사는 암 또는 게실(憩室) 형성으로 대장절제수술을 받은 환자 34명 중 절반에게만 수술 후 첫 장운동이 시작될 때까지 한 번에 한 시간씩 하루 3번 껌을 씹도록 한 결과 평균입원 기간이 4.3일로 껌을 씹지 않은 대조군의 6.8일보다 크게 단축됐다고 밝혔다.

또 가스 배출까지 걸린 시간은 껌 그룹이 평균 65.4시간, 대조군 80.2시간이었고 첫 장운동이 나타난 시간은 껌 그룹이 63.2시간으로 대조군의 89.4시간에 비해 역시 훨씬 빨랐다. 배고픔을 느낀 시간도 껌 그룹이 63.5시간으로 대조군의 72.8시간보다 약 10시간 빨랐다.

해리스 박사는 껌 씹는 것이 이런 효과를 가져오는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껌을 씹으면 음식을 먹을 때와 같은 신경을 자극해 위장관을 활성화시키는 호르몬이 분비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위장 수술은 오랫동안 위장 기능이 정지되는 장폐색을 가져올 수 있으며 장폐색이 오면 통증, 구토, 복부팽만으로 고통을 겪게 된다.

〈연합뉴스 2006. 2. 21〉




변비, 수술로 고친다

변비는 우리나라 기혼 여성의 30% 정도가 앓고 있을 정도로 심각하다. 게다가 남녀 가릴 것 없이 발생률이 점차 높아지는 추세다. 술한 민간요법이 떠돌지만 변비 치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생활습관 개선이다. 여기에 최근에는 직장을 절제하는 수술법이 선보여 관심을 끌고 있다.

대장·항문을 전문으로 하는 대항병원 변비클리닉은 지난해 12월 대장항문학회 학술대회에서 항문 직장 절제술을 발표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변 완화제 등 약제로 해결하기 힘든 변비환자 41명을 대상으로 수술 후 3개월째 조사했더니 80%의 환자에게서 정상인과 같은 배변감을 보였다고 밝혔다. 대항병원 신종근 과장은 "심한 출구 폐쇄성 변비환자 중에서 새로운 치료법으로 치유할 수 있는 환자는 13% 이상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변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능성 변비는 크게 서행성 변비, 과민성 대장증후군, 출구 폐쇄성 변비 등으로 나뉜다. 이중 출구폐쇄성 변비가 절반을 웃돈다.

이번에 선보인 변비 수술법은 '경항문 직장절제술'로서, 자동 봉합기의 일종인 '원형자동문합기' 2개를 사용해 변비를 유발하는 직장 내 직장류나 직장중첩증을 제거하는 수술이다. 직장류와 직장중첩증은 폐쇄성 변비 환자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경우로, 항문 안쪽에서 늘어서 배변 때 항문 입구를 막아 장애를 유발한다.

직장 절제술은 항문을 통해 시행되며 평균 수술 시간은 약 30분 정도로 비교적 단시간에 끝난다. 입원 기간도 2~4일 정도여서 큰 합병증이 없으면 주말에 수술과 퇴원을 할 수 있다. 퇴원 후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수술 이후 통증도 적은 편이다. 

〈세계일보 2006. 2. 21〉